

#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가족환경적 요인과의 관계

정 영 숙(대구대학교 교수) · 이 우 구(대구대학교 박사)

한 방 미(대구대학교 박사)

## I. 연구목적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의 이주민 가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일이나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우리 사회도 이제 다민족·다문화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종과 문화적 국경을 넘은 다문화 사회의 진전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란 제도를 토대로 삶의 터전을 형성하는 경우에 이주여성들이 아직 한국적 정서와 가치, 한국적 문화와 융합하지 못하고 한국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방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정서적 부조화로 인해 사회 내의 새로운 소수집단,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수용과 공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가족갈등 및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행·재정적, 법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문화적 차이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적지 않은 수의 아동이 언어발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어야 하는 이슈는 언어발달지체를 지닌 아동을 조속히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언어치료 교육을 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강금화 외, 2011; 김영기, 2011; 배소영 외, 2010).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보 및 인식부재로 인해 언어발달지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간과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의 지연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아동이 언어발달지체나 장애로 전이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아동이 지니고 있는 언어발달지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간과하면 언어 및 인지발달의 결정적 중재 시기를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행동문제로 발전되어 치료교육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아동과 같이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제는 가족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아동이 일반 아동과 달리 언어발달지체 문제를 지니게 될 경우 부모는 심각한 양육문제와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친인척관계, 사회적 격리감, 그 밖의 활동에서 아동 못지않게 부모 역시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자녀가 언어발달지체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는 불안과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환경이 가족 간 갈등과 스트레스의 과급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언어발달지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아동의 언어발달지체, 부모와 아동간의 정서적 불일치, 부모의 양육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내재적으로 구조화되는 특성이 있다. 자녀의 언어발달지체는 부모의 양육갈등을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 자녀 양육에 따른 불안 및 우울 등과 같은 부모의 심리적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아동에게 필요한 최적의 양육환경이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경제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체계 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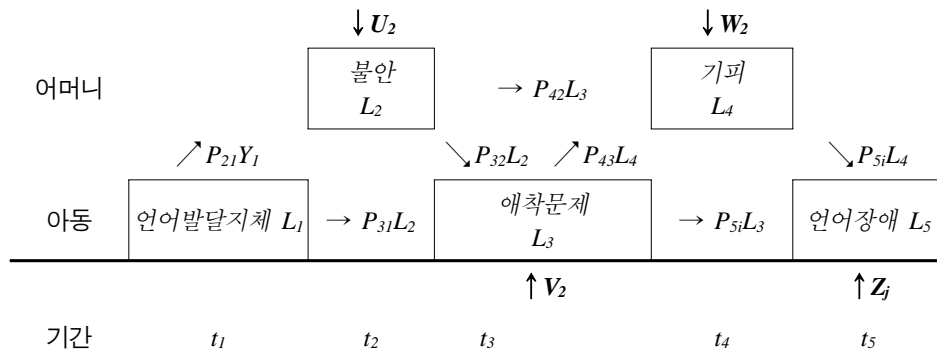
아동이 지닌 언어발달지체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아동 개인이 지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를 가족환경에 내재된 문제요소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예측한 연구자료 및 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지체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부모의 심리적 역기능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생태학적 분석모델인 교류모델을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발달지체 아동과 다문화 아동의 인적자원을 보호하고 교육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발전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언어발달지체를 지닌 아동의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에 대한 문제는 부모 뿐 아니라 교육전담 부서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 정책방안을 어떻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국가의 아동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적용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아동발달은 아동과 그 가족이 사회적 체계에서 경험하는 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아동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체계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인과적 체계를 지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초기의 아동문제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언어적 발달이 지체되면, 그로 인해 부모는 불안하게 되고 그러한 부모의 심리적 불안정이 아동의 기질이나 애착 등과 같은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쳐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할 연구모형은 기존이론의 틀을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상호작용모형으로 구체화하였다.

언어발달지체 모형에서 애착문제란 아동이 적합한 환경에서 양육 받지 못하거나 방임될 경우 그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아동이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의 기본적인 정서적·신체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거나 양육자의 빈번한 교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애착문제 증세는 아동이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경계하고 때론 이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자료수집

다문화아동에 대한 자료는 경북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외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수집되었다. 첫째, 174명의 가족을 선별하였고,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가족은 만2세부터 만1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다. 둘째, 선별된 아동들 중 잠재적으로 언어발달지체에 노출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집단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가 한글교사, 다문화가정 방문교사, 언어치료사 등의 자문 팀과의 토론을 거쳐 수행하였다. 선별과정을 거친 결과, 전체 174명의 아동 중 54.0%(94명)는 언어발달지체 증세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2세이며, 동거 가족 수는 4.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54.3%는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35.1%는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다수인 69.1%가 고졸 이하이며 고졸과 전문대졸은 29.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정립한 연구모형은 경로분석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경로분석은 가정된 인과모형 안에 포함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경로분석을 적용하면 변인 간에 형성된 관계에서 원인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다른 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다문화아동 연구모형에서는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부모의 불안과 인과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본다. 그 다음 아동의 애착문제를 종속변수로, 아동의 언어발달지체 및 부모의 불안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의 기피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최종 분석단계에서는 이상의 요인들과 언어발달지체 및 장애와의 관계를 검증한다.

아동발달 차원에 대한 검증은 Buck's Behavior Rating Scale(BBRS)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발달요인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한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아동발달 차원의 분석을 위해서는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사용했는데, 이는 연구의 목적이 요인들 사이의 잠재적인 차원을 규명하는 것일 때, 또 분산의 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적합하다. 요인분석을 적용하면 변인 간에 공통 요인 또는 인자를 찾아내어 각 변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정도를 산출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구조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요인의 적수는 스크리 검증 결과와 아이겐 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을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으며, 요인분석에 의해 묶인 공통적인 요인은 Cronbach's  $\alpha$ 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거쳤다.

### III. 분석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언어발달지체와 가족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가족 환경적 요인 즉 부모의 불안 및 기피, 아동의 애착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은 연구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개의 회귀함수에 중점을 두었다. 첫 단계인 아동의 언어발달지체와 부모의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는 부모의 불안과 정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심각할수록 부모의 불안도 더불어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함수의 인과관계는 성립된다. 이번에는 아동의 애착문제를 결과변수로, 아동의 언어발달지체와 부모 불안이 원인변수인 두 번째 함수 역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한 정적인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심하고, 부모가 불안해할수록 아동의 애착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더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불안해할수록 아동과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로 인해 자신의 기본적인 감정적 욕구를 표현하는데 한계적이고 그러한 욕구를 방치하면 지속적으로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지 못하고,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을 취하면서 애착문제도 더불어 심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경계하고 때론 양면적으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애착대상을 선택하는 능력도 결여된 경향이 있어 낮은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도 하는 등 애착 대상을 제대로 분별하여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는 이러한 경향이 부모가 아동의 증상에 대해 불안해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아동의 애착문제에 아동의 언어발달지체 ( $\beta=0.24$ )보다 부모 불안( $\beta=0.54$ )의 영향력이 월등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기피를 결과변수로, 아동의 언어장애, 부모 불안, 아동의 애착문제를 원인변수로 한 세 번째의 함수도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세 독립변수는 부모 기피 분산을 28%( $R^2=0.28$ )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부모의 기피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심해서 언어장애로 연결될수록, 애착문제가 심해질수록 그리고 부모가 불안해할수록 부모가 아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세 변수 중 부모가 아동을 기피하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불안( $\beta=0.41$ )이며 아동의 언어장애( $\beta=0.16$ )와 애착문제( $\beta=0.13$ )는 영향력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부모의 불안에 그

리고 아동의 애착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불안을 경유하여 아동의 애착문제(0.13)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불안은 아동의 애착문제( $\beta=0.54$ ) 및 부모의 기피( $\beta=0.41$ )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더불어 아동의 애착문제를 경유하여 부모의 기피(0.07)와 간접적인 관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연구모형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표 1> 인과관계 : 아동의 언어지체와 가족환경적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
부모의 불안 L <sub>2</sub>	아동의 언어발달지체 (P <sub>21</sub> L <sub>1</sub> )	0.37**	0.11	18.32
	Constant	4.42**		6.74
	F	45.42**		
	R <sub>2</sub>	0.11		
아동의 애착문제 L <sub>3</sub>	아동의 언어발달지체 (P <sub>31</sub> L <sub>2</sub> )	0.12**	0.24	4.63
	부모의 불안 (P <sub>32</sub> L <sub>2</sub> )	0.59**	0.54	18.01
	Constant	1.90**		11.02
	F	24.62**		
	R <sub>2</sub>	0.19		
부모의 기피 L <sub>4</sub>	아동의 언어장애	0.17**	0.16	4.14
	부모의 불안 (P <sub>42</sub> L <sub>3</sub> )	0.41**	0.41	10.69
	아동의 애착문제 (P <sub>43</sub> L <sub>4</sub> )	0.09*	0.13	1.97
	Constant	1.68**		8.77
	F	35.07**		
	R <sub>2</sub>	0.28		

\*p< 0.05      \*\*p<0.01

<표 2> 인과적 효과 : 언어발달지체와 가족환경적 요인

독립변수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의 언어발달지체	0.14	부모의 불안 경유 → 애착문제 : 0.13	0.27
부모의 불안	0.41	애착문제 경유 → 부모의 기피 : 0.07	0.48

## 2.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아동발달 차원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아동발달 차원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동발달 차원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이들 3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분산은 73.9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인 1로 설명되는 분산은 29.65%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 설명력이 높았다. 요인 1에서 비교적 높은 요인부하량을 가진 항목은 정체감결여, 현실감결여, 사회적응력부족, 주의력결여, 지적능력결여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요인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발달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발달차원을 반영하는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를 말해 주는 *Cronbach's α*값은 0.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협응력 결여의 요인부하값이 0.8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체력부족과 자아강도 결여이며 이들 세 항목이 전체 분산을 23.6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개의 항목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데 있어 신뢰도는 0.84로 비교적 높았다. 문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인 2에 포함된 항목들은 신체적 발달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 3은 자책, 불안의 요인부하량이 0.8이상으로 높고 의존성도 0.702이며 위축이 0.57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부하량을 가지고 있다. 요인 3에 포함된 항목들은 인지적 발달차원을 시사한다.

<표 3> 아동 발달 차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성분		
	사회적 발달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체감결여	0.845		
현실감결여	0.807		
사회적응력부족	0.757		
주의력결여	0.681		
지적능력결여	0.620		
협응력결여		0.872	
체력부족		0.840	
자아강도결여		0.621	
자책			0.876
불안			0.836
의존성			0.702
위축			0.570
Eigen value	3.559	2.842	2.474
Variance	29.65	23.68	20.61
Cum. variance	29.65	53.34	73.95
Cronbach α	0.87	0.84	0.81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요인분석 결과 파악된 아동 발달 차원이 언어발달지체와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세 차원 중 신체적 발달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은 언어발달지체와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언어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지적 발달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β값을 기준으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인지적 발달( $\beta=-0.258$ )보다 사회적 발달( $\beta=-0.317$ )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 발달의 세 차원은 언어발달지체의 분산을 21.8%( $R^2=0.218$ )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언어지체가 발달차원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βeta	t
(상수)	4.468**		11.640
사회적 발달	-0.457**	-0.317	-2.607
신체적 발달	0.072	0.051	0.429
인지적 발달	-0.480**	-0.258	-2.594
F		10.149**	
R <sup>2</sup>		0.218	

\*p< 0.05 \*\*p<0.01

###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 문제를 지닌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생태학적 논리를 기초로 한 교류모델을 확대·적용한 연구모형을 정리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지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적 가정이 전반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체 문제를 지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부모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불안은 아동의 애착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애착문제는 부모의 기피와 관계가 있고, 부모의 기피는 아동의 언어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통계결과가 없음) 이는 아동발달이 경험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과 부모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동발달이란 측면에서 사회적 규범이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지체는 이들 아동의 언어적 능력에 문제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언어를 접하고 배울 기회가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필수적 도구이다. 그러나 다수의 다문화여성은 결혼 초기에, 한국어를 배우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 후에도 한국어 실력이 미흡한 어머니가 됨으로 인해 아동의 언어적 표현력 및 이해력이 낮아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은 언어발달지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착문제와 같은 정서적 측면과 연계되어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를 초래하는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발달지체가 부모의 심리적 불안이나 문제성 있는 아동의 기질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가 아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피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문제를 지닌 아동과 가족을 위해 조기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어떤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말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약 여러 유형의 문제들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낸다는 취지에서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기피를 선택한다면 그러한 선택은 복잡한 발달문제의 결과를 지나치게 단순화 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는 본 연구모형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한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언어발달지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언어발달지체를 위한 조기중재와 치료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표나 전략이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말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은 부모교육을 포함한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를 위한 조기중재 전략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 정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아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언어발달지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의 언어발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부모도 정서적 관리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절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가족환경이 조성되는데 일익을 하게 될 것이다.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를 포함한 가족 환경적 요인은 아동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으므로 언어발달지체 아동이 지닌 문제를 전문기관과 가족이 협력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치료를 해 주는 것은 아동이 지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을 보호하고 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발전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가족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아동이 언어발달지체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 가족이 지닌 충격흡수장치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불안정한 환경과 부모의 불안 등은 아동의 양육과 언어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부모나 그 밖의 가족구성원들이 받는 불안과 기피,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형성이나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작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족환경을 포함한 아동복지는 복합적 상호체계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 체계에 변화가 있으면 이러한 변화가 다른 체계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가족 환경적 요인들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비롯한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이나 아동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복합적 상호체계 내에서 아동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금화 · 황보명(2011). 5세 다문화 가정과 일반 아동의 언어, 읽기, 음운인식능력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9(1):143-158
- 김영기(2011). 초등 다문화 아동 가정의 단락 듣기 이해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소영 · 김미배(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연구, 15(2): 146-156.



##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가족환경적 요인과의 관계

장 영 은(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발표 논문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과 아동의 애착문제라는 기제를 통해 어머니의 기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어지는 연구문제에서는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 또는 그 이상의 언어적 환경에 노출된 2세들이 언어발달을 성취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발달의 어려움이 학교적응 및 또래관계 형성 등 사회적응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음을 인지할 때 시의적절한 주제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영달 등(2009)은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 시기에 그 기초가 형성되는데, 자녀 언어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외국인 일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는 언어발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언어발달은 언어의 지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사회적응 전반을 결정지을 수 있는데, 서현·이승은(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유아가 부모의 양육태도, 자신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 혼란, 가정 내 언어자극 부족으로 인한 언어문제, 또래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표출을 회피하며,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김유경 등(2008)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단계별로 한국어 학습 교재를 개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본 발표논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어발달지체의 기준과 측정과정 등과 같이 도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측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측정도구에 따라 언어발달 지체 및 장애의 비율에 차이가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오소정 외(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chool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3)에 의한 검사의 경우, 검사 참여아동의 20% 정도가 전반적인 언어이해나 표현에서 언어발달 지체 또는 장애를 보인 반면,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SELSI; 김영태, 김경희, 윤혜련, 김화수, 2003)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언어발달 지체(정밀검사 의뢰) 판정을 받은 아동이 70%로 검사에 참여한 아동 상당수가 언어발달 지체로 평가되었다. 발표논문의 측정도구와 선별기준을 기존의 언어발달 측정도구와 비교한 결과를 추가하여, 언어발달 지체 판정의 타당성을

보강하였으면 한다.

또한 발표논문에서는 자녀의 언어발달지체 → 어머니의 불안 → 애착장애 → 어머니의 기피라는 아동과 어머니 간의 상호호환적인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기존의 연구가 아동의 언어발달을 어머니 및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input으로 작용한 하나의 발달적 결과로 보았던 반면, 이 논문에서는 아동의 언어발달문제를 어머니 양육행동이나 태도의 선행 요인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과 다른 영향력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뒷받침이 강화된다면 더욱 나은 논문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 연구가 제시한 순환적 관계를 연장시켜 보았을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적 한계가 언어 발달지체의 원인도 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나 자녀를 대하는 양육태도와 행동이 자녀의 발달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져 왔는데, 발표논문에도 추후에 이러한 변인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는 언어발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시 어머니 자신의 모국어 보다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진숙(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와 대화시 한국어 사용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모국어 사용 어머니보다 자율적이었으며,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언어 능력(이해력)과 사회 능력(협조성)에 긍정적 영향 미친다고 밝혀, 자녀의 언어발달의 특성이 어머니의 한국어 사용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가 어머니의 불안과 기피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최나야·우현경, 2009)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적응 상에 문제가 아닌, 상대적인 성격, 즉 다른 가정, 다른 어머니, 다른 한국 아이와의 비교에서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 불안감 등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는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복지 뿐 아니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과 교육과 관련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와 사회적 지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과 공적기금 활용한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발표논문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언어발달의 어려움이 어머니의 적응과 다시 자녀의 다양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제안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모형에서는 최종변인이 언어장애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과는 별도로 아동발달을 보고 있다. 연구제목, 연구문제, 그리고 연구모형의 일관성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아동의 언어발달지체가 간접적으로나마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애착 문제나 언어발달 지체 등의 측정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